

# “외국인 눈으로 본 5·18 진실, 세계에 계속 알리겠다”

미국 캘리포니아 5·18 기념일 지정 숨은 주역...광주서 만난 폴 코트라이트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외에서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정하는데는 42년전 5·18을 목격하고 증언한 ‘푸른눈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 15일 광주서 북구 한 호텔에서 주인공인 폴 코트라이트(68·Paul Courtright)씨를 만났다. 미국인인 그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와 나주 등을 오가며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소속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5·18 기념일이 지정된 것은 주의회와 한인들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지만, 그의 역할이 없었다면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안(HR120)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5월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LA 한국교육원 강당’에서 5·18 강연을 했다. 5·18기념재단 LA지부 관계자들의 요청으로 열린 강연에서 그는 직접 보고 느낀 1980년 광주의 참혹한 실상을 알렸다.

강연 현장에는 마침 캘리포니아 5·18기념일 지정을 준비 중인 이들이 있었다.

코트라이트씨는 외국인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5·18 관련 책을 달라는 이들의 요청에 자신이

당시 평화봉사단으로 나주서 봉사

‘5·18 푸른 눈의 증인’ 저자

주의회 의원들 책 읽고 깊은 감명

“한국 왔을 때 5·18 왜곡에 놀라

광주정신 알리기 어디라도 갈 것”

쓴 책(5·18 푸른눈의 증인) 20~30권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에게 책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광주의 실상을 생생하게 담은 그의 글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책에는 미국 평화봉사단 소속으로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나주 나환자 정착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목격한 5·18의 생생한 모습이 담겨있다. 1980년 26세의 나이에 그가 광주와 주변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목격하고 군에 의해 광주에 갇혀 겪은 1980년 5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의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다. 참혹한 실상 뿐 아니라 10일간 대동세상을 이룬 광주의 모습도 포함돼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은 그의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 광주 목격자이자 ‘5·18 푸른 눈의 증인’의 저자인 폴 코트라이트씨가 지난 15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켄 콜리(Ken Cooley)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사위원장이 직접 코트라이트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관계자들이 이메일 등으로 감사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이트씨는 지난 8월 8일 캘리포니아 주의

회에서 열린 5·18 기념일 지정 기념식에도 초청을 받았다. 현장에서 만난 콜리씨는 그에게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위원회 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전했다”면서 “이 책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instrumental) 역

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 책이 이런 역할을 해 정말 뿌듯했다”면서 “앞으로도 5·18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한국에 들어와 13일부터 5일간의 광주 일정을 소화한 그는 “40여 년 전 5·18 당시 전남도청 앞과 금남로 일대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돼 서로 격려하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면서 “당시 광주 시민들은 서울 퍼런 군 독재 시기에도 함께 뭉쳤다. 서로 배척하고 싸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5·18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9년 한국에 왔을 때, 5·18이 왜곡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외국인의 눈으로 5·18을 바라본 나의 책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16일 무등산 등반을 마지막으로 광주 일정을 마친 그는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나의 목표는 아직도 진행형”이라면서 “5·18기념재단에서 내년 5·18행사에 역할을 맡아달라고 해 고맙습니다”고 웃어보였다.

한편 지난 8월 9일 새벽(캘리포니아 현지 시각 8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본회의에서 매년 5월 18일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교통사고 운전자 구하려다...20대 ‘안타까운 죽음’

호남고속도로서 구호조치 중  
화물차에 치여 2차사고로 숨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갇혀 있는 운전자를 구호하려던 20대가 2차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도 유망한 20대가 구호조치에 나서다 사고를 당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장성소방과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15일 새벽 1시30분께 장성군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편도 2차선도로에서 A(53)씨가 몰던 21t 화물차가 전복돼 있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복된 쏘렌토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 B(55)씨와 사고현장을 지나치지 못하고 구호조치와 사고 수습을 돕던 C(24)씨가 심정지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10분 전께 쏘렌토 차량이 14t 화물차량 후미를 추돌했고 중심은 잃은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후 두 차량 모두 전복됐다.

이 사고로 쏘렌토 차량 운전자는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화물차와 함께 2차선 도로를 막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모닝 차량을 탑승하고 사고 현장을 지나던 C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쏘렌토 차량 운전자를 꺼내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현장에는 안전 삼각대가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가로등이 많아 도로는 밝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로부터 사건을 인계 받아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희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화장실 출산 후 신생아 방치 사망...산모 집유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산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지난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새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산 전날 잤은 산부인과 의사가 임원을 권고했음에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 다음날 새벽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출산 직후 아기가 저체온인 걸 확인했음에도 병원을 가지 않고 수건으로 아이를 감싼 채 잠이 들었다. 1시간 30분가량 지나 잠에서 깬나 이미 아기는 숨진 후였다.

재판부는 “분만 직후 병원을 찾았으면 아기가 90% 이상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생부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가족들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는 등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출산 전 입양 기관을 찾아보는 등 노력한 점, 친모로서 평생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여수산단 등 노후산단 안전관리 허점투성이

윤관석·양향자 의원 잇단 지적

여수산단 등 30년 넘는 노후 산단에서 중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안전관리 체계는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 을) 의원이 한 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전국 국가산단에서는 117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해 209명의 사상자와 116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여수산단에서만 15건이 발생해 25명의 사상

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 피해는 2018년 사망 28명, 부상 39명에서 지난해 사망 24명, 부상 21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으며 재산피해 또한 2018년 22억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만해도 578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작 입주 기업 안전점검·지도 의무는 관리 기관인 산단공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 또한 산단공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

적이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노후 배관이 지목되나, 산단공 차원에서 노후 배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 을)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 산단에서는 지난 5년 동안 432건의 가스 및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과 직결된 배관 도면, 총연장, 내구연한, 교체 내역, 사고 내역 등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사고 원인 파악, 실태 파악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전국 산단 내 배관 설치 현황과 안전 기준을 마련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양파 농사 힘들다며 자기 집 불지른 30대 영장 신청

부모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남경찰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8)씨를 붙잡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께 해남군 화산면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3시간만인 오후 4시 30분께 진화 됐지만 집은 완전히 타버렸다.

방화 당시 같은 집에 거주중 이던 A씨의 부모는 밭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양파 농사를 짓기 위해 비닐을 씌우려 가자는 부모에게 불만을 품고 집이 비어있는 사이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연기가 나는데 집을 나서서 A씨를 봤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마을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